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F1오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F1오리는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F1오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F1오리는 항상 오리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그 동안 오리업계는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해 왔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아직도 낙후된 축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우, 돼지 등에 밀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강한 오리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기반이 견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생산시설만으로는 강한 오리 산업이 되기는 힘들다. 때문에 오리계열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농가들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오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원종오리 생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높여야
2012년은 오리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오리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종오리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그 동안 원종오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리업계 내부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원종오리에서 본격적인 PS오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PS오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가격 경쟁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종오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리업계가 지불한 수업료는 만만치 않았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원종오리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오리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기대한다. 오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고도성장 후에는 반드시 구조조정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금년 한 해는 오리업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오리 산업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때문에 나 하나가 아니라 오리업계 전체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오리 산업은 또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쿠나 마타타 플레 플레



김동호
농수축산
기자

오리산업은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의 규모를 키워왔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2007년 약 4800만 마리였던 도압실적은 2011년 11월까지 약 77백만마리로 크게 늘었고 산란율과 부화율이 높아지

는 동시에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며 생산분야의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이에 힘입어 2010년 오리산업의 총생산액은 1조3059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소비측면에서는 웰빙붐과 궤를 같이 하며 오리고기의 소비량 또한 급격히 성장했는데 2001년 1020g을 기록했던 국민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9년 2110g까지 성장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뤄진 급격한 성장으로 가금 산업에서 오리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졌지만 1조 원이 넘는 산업 규모에 비해 산업의 위상이 낮으며 기반산업은 육계나 산란계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대다수의 축사는 낙후돼 있다. 또 지난해 중반부터 심각한 공급 과잉을 야기했던 F1오리의 사육문제 또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고병원성 AI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다.

하쿠나마타타 폴레 폴레! ‘괜찮아 다 잘 될꺼야. 천천히, 천천히’라는 뜻을 가진 스와힐리어 한마디에는 단순함속에 긍정적인 사고와 느낌의 미학,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담겨있다.

머나먼 아프리카 땅의 이 한마디가 올 한해 오리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제까지 빠른 성장을 따라잡기에 바빴던 오리산업은 이제 낙관적인 사고로 천천히 산업기반을 일으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먼저 통계확보, 법률정비, 오리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구축, 기초 및 응용연구 확대 등을 통해 오리산업의 저변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오리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 단체인 오리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방역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곧 다가올 중국과의 FTA에서 국내산 오리고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수입오리고기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오리협회 및 회원사가 중심이 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F1사육단속 및 위반자 처벌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은 공급이 1%만 많아지더라도 가격의 낙폭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을 가장 크게 해칠 수 있는 F1사육 단속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현재 오리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오리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리산업은 올해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기 보다는 이후 이어질 더 빠른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져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오리산업의 주체들이 자신감을 갖고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저변을 강화하고 산업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오리산업’ 축산업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 잠재력 · 가능성 검증…주요 축산물로 자리매김 해야할 때”



이혜진
축산경제신문
기자

몇 해 전부터 오리 산업은 축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 (blue ocean)이라고 칭해지며 오리 산업의 시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리 산업의 성장 속도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1992년 오리생산액이 222억에 불과했는데 20년도 채 안된 지금 2008년 1조를 넘어서며 생산액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그 파급 효